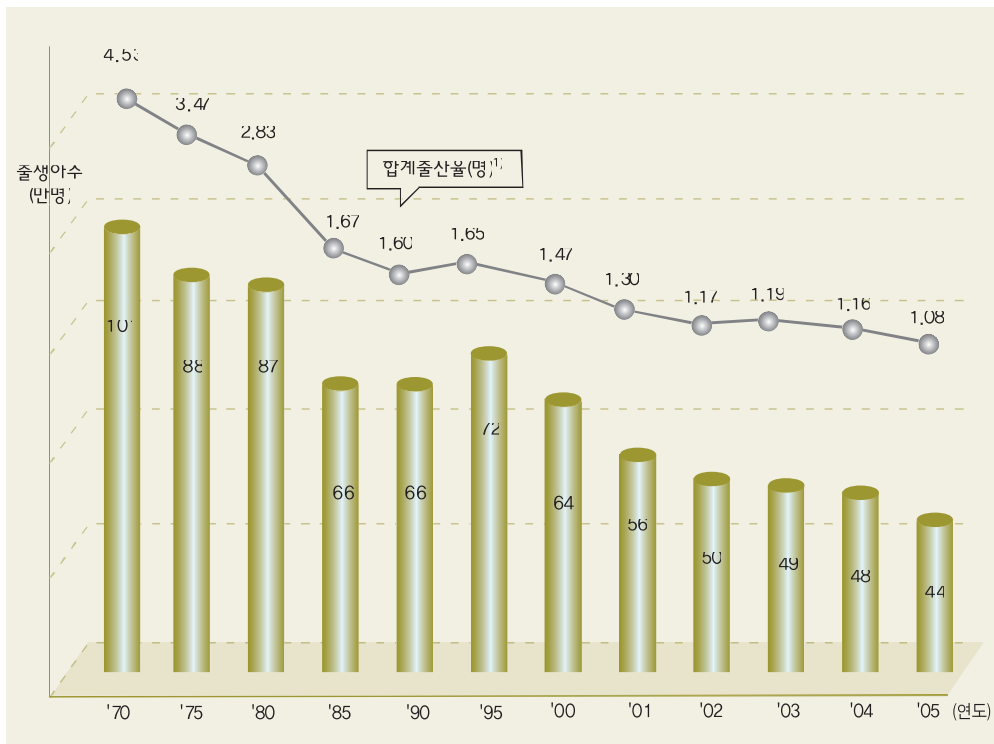


출산율과 인구 변화

최혜선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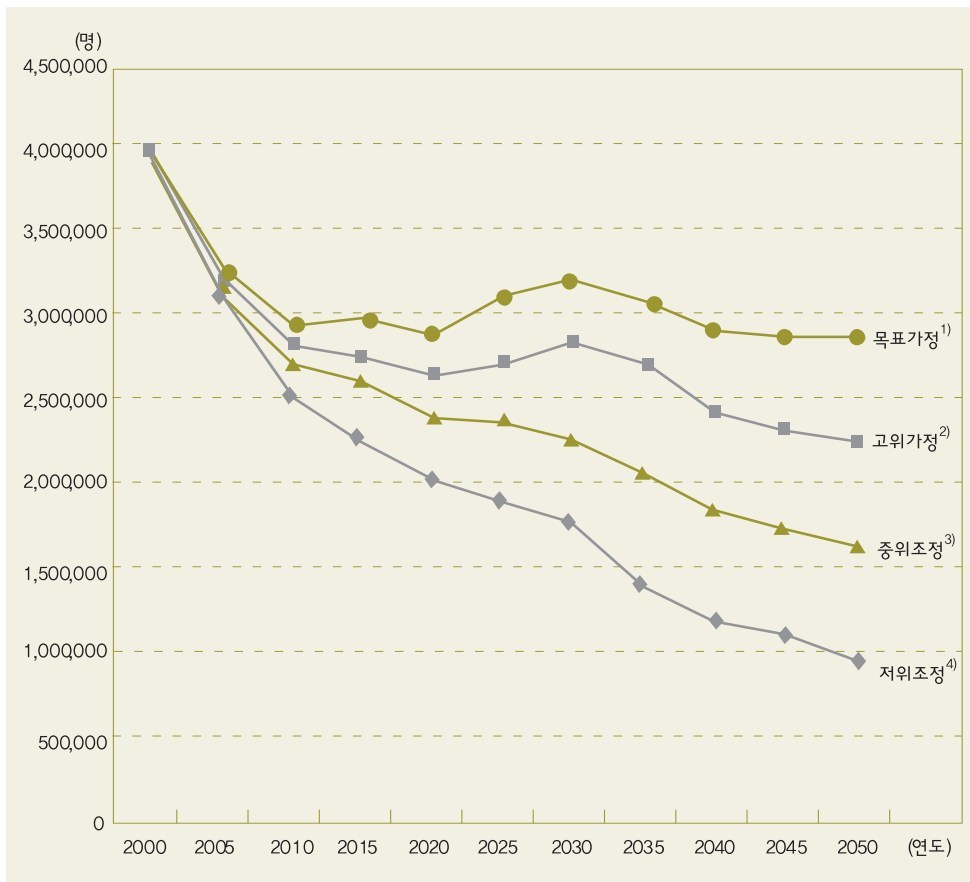
-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여년간 저출산 현상 지속됨.
-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여 2005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낮아짐.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주: 1)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 0~5세아 인구수 변화 추정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의하면 2005년 0~5세 아동수는 3,158,538명임. 이 아동수를 기준으로 출산율 가정에 따라 0~5세 아동수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목표가정 시 2020년 289만, 2030년 319만 5천, 2040년 290만, 2050년 284만 9천 명이 됨.
 - 중위조정 시 2020년 239만, 2030년 232만 5천, 2040년 182만5천, 2050년 158만4천명으로 감소하게 됨.
- 2050년 0~5세 아동수는목표가정 대비 중위조정시 1/2, 저위조정 시 1/3 수준으로 감소함.



주: 1) 목표가정은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인구대치수준인 2.10에 도달하는 것임.

2) 고위가정은 출산율이 2002년 수준인 1.17을 최저점으로 서서히 증가하여 일부 유럽국가의 수준인 1.80까지 회복하는 것임.

3) 중위조정은 출산율이 2000년 수준인 1.40으로 회복되는 것임.

4) 저위조정은 출산율이 2003년의 1.19에서 더욱 낮아져 일부 대도시에서 나타난 출산율 수준인 1.0으로 떨어지는 것임.

자료: 이삼호 외(2005), 인구고령화와 교육·인력개발, 한국개발연구원.